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윤재웅
동국대학교 교수·문학평론가

이 무렵 되면 봄 생각 절로 난다. 입춘(立春)이란 이름 때문인가. 천지 시간표가 예정 시각에 정확하게 도착하는 봄 열차를 알려주는 것 같다. 예전에 입춘일이 다가오면 집집마다 ‘입춘첩’을 붙여 새 봄의 소망을 나타내곤 했다. ‘올봄엔 좋은 일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立春大吉 建陽多慶)라는 붓글씨를 써서 대문에 붙인다. 인심 좋은 집안에선 여러 장 써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한다. 행복한 세상을 위한 덕담 공유 문화다. 하지만 입춘첩은 글 읽을 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서 식자층들만의 의사소통이 되고 말았다.

봄바람 봄 냄새

크리스마스 문화나 밸런타인데이의 사랑 고백 풍습은 왜 동서양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까. 의미 전달 체계인 기호(sign)만으로는 다중(多象)에 호소하기 어렵다. 실제로 내 몸과 와 닿는 감각,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미치는 영향, 기호의 단선적 기능을 넘어서는 풍성한 스토리텔링이 결합했을 때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끌게 된다. 그것이 참된 의미의 의사소통이다.

‘입춘’보다 다른 게 필요하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봄 사이의 의사소통은 뭘니 해도 감각이 우선이다. 달걀, 냉이, 썬바귀 같은 나물이 밥상에 올라오면 봄은 도드라지게 다가온다. 샹크한 향내가 입안에 감돌면 목은감지로 겨울나던 입맛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처럼, 땅에서 딱 나기 시작한 풀들이 생명의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다. 김유정 소설 ‘동백꽃’ 결말의 한 대목이 시사적이다. “...그 바람에 나의 몸통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드러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 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썩 타는’ 사랑을 체감하게 해준다. 그래서 봄 향기는 ‘입춘’보다 확실한 봄의 증거다. 바람은 봄의 최고 짝이다. 살결에 다가오는 봄바람은 그 부드러운과 따스함으로 만물생육을 관장하는 너그러운 어머니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정치 지도자의 관대함의 표시가 되기도 한다.

중국 최초의 시가집 ‘시경’ 속에 제왕의 정치술에 관한 ‘대아(大雅)’ 편목이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백성 섬기는 지도자의 마음가짐과 국정철학에 대한 것이다. ‘대아의 성격과 그 활용은 추사 김정희가 쓴 ‘봄바람은 제왕의 마음과 같아서 큰 아량으로 만물을 품어 안는다’(春風大雅能容物)는 구구를 통해 많이 알려졌다. 진정한 봄이란 이런 것이다. 자기들끼리의 의사소통이 아니라, 청춘남녀의 몸을 달아오르게 하여야 하고 백성들을 고생에 빠뜨리지 말라는 민심의 노래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살충제에 의한 지구 생태계의 재앙을 경고한 레이첼 카슨의 책에 ‘전에는 아침

에는 울새, 검정지빠귀, 산비둘기, 어치, 굴뚝새 등 여러 새의 합창이 울려 퍼지곤 했는데 이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들관과 숲과 습지에 오직 짐목만이 갈돌았다’는 구절이 나온다. 이름 하여 ‘짐목의 봄’이다.

생명이 약동하지 않는 봄은 봄이 아니다. 민심이 소통되지 않는 사회는 짐목의 사회일 뿐이다. 자연은 정직하고 정확하며 예측할 수 있다. 사람 사는 세상 또한 이래야 한다. 정치가 요즘 분위기 쇄신에 바쁘다. 청와대도, 여당과 야당도 ‘올봄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는 입춘첩을 붙이고 싶은 게다.

그러나 개혁, 의사소통, 민심수습 같은 말 잔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정책결정과 집행이 살결에 감기는 훈훈한 바람 같아야 한다.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연애하도록 해야 한다. 백화난만 꽃피듯이 감동의 개별적인 사례들이 이야기로 전해져야 한다. 국정의 봄바람과 봄 냄새, 국민 모두가 바란다. 구호는 가고 체감은 오라.

특별기고

2015년, 광주에 부는 신(新)바람



임내현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구을

2015 올미년, 우리 광주에는 변화와 발전으로 가는 신(新)바람이 불고 있다. 4월이면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는데 현재 일부 열차의 서대선역 정차문제를 놓고 논란중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서울과 광주 송정역이 1시간30분 만에 연결된다. 7월에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개최되어 전 세계인이 광주를 주목하게 된다. 또, 9월에는 연면적 17만㎡에 9600여원의 예산이 투입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한다. 물론 전당의 운영 주체와 국가 재정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자산 156조원, 매출 54조원 규모의 한전 본사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을 하였는데 지자체와 협력

해 기술선도 에너지 기업 100개를 유지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어 국내 전력산업의 중심지인 ‘빛가람 에너지 밸리’로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

또한 1월27일에는 광주를 자동차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그룹이 지원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었다. 광주혁신센터는 1센터와 2센터로 나뉘는데 광주과학기술원에 들어선 1센터는 자동차 관련 분야에만 집중하여 ‘자동차 밸리’의 꿈에 더욱 가까워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사업’ 계획도 이미 기획재정부가 KDI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해놓은 상황이다. 현재 광주에서 연간 약 50만대 가량의 자동차가 생산되고 있으나 100만대까지 확대하기가 쉽지는 않을지라도 60만~70만대까지만 늘려도 우리 경제에 큰 활력이 될 것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18년까지 총 80조 7000억원을 신규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돈으로 자동차 공장 신·증설 등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에 나설 계획이다. 이 중 우선 1775억원 가량이

우리 광주지역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동차 선도시를 꿈꾸는 우리 광주에는 무척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2030년 약 400조원 규모로 성장할 세계 연료전지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수소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연료전지차 생산을 위한 투자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광주는 국내 3대 부상수소(원유 정제과정의 부산물) 생산기지인 여수산업단지와 가깝고, 광주에는 광주과학기술원과 자동차부품연구원, 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등의 연구시설이 있다. 이와 함께 수소연료전지 분야 관련 기업도 80여 곳에 달하며,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150억원의 ‘수소펀드’도 조성되어 있어 수소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한 최적지로 꼽힌다. 향후 광주가 자동차산업 뿐만 아니라 수소연료전지차 분야까지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어 벌써부터 가슴이 설렌다.

이처럼 2015년은 우리 광주가 경제발전과 문화융성의 시대를 맞는 한 해가 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사회·문화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 면에서도 올해는 눈에 띄는 성과가 기대된다. 지난 1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

라포럼’ 신년하례회에는 호남 출신 각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는데 임재정 전 국회의장, 이용훈 전 대법원장, 김홍식 전 국무총리 등과 지역 출신 전·현직 국회의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임권택 영화감독 등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 축사를 하기도 했다. 당일 대구에서 대구·광주·전남·경북 시도지사 만나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영호남 인적 교류확대, 문화와 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실천하는 데 속도를 내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2015년은 우리 광주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준비되어 있다.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면 올해가 광주에 매우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생긴다.

이제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여 광주의 발전을 이끌어 낼지는 오롯이 광주의민들의 몫이다. 광주시민과 국회의원, 광주시장 등 모두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준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의료칼럼

노인에게 치명적인 낙상



김석원
조선대병원 척추센터 신경외과 교수

75세 김모 할머니는 며칠 전 동네 산책을 나갔다가 엉덩방아를 찧었다. 그 때만 해도 별다른 불편한 점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허리가 너무 아파 꼼짝도 못했다고 한다.

김 할머니는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허리가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이럴까요?”라며 울상을 지었다. “할머니 연세에는 골다공증이 있어서 넘어지면 쉽게 뼈가 부러져요.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이라고, 허리뼈도 낙상 후 많이 부러져서 병원에 오시는 노인들이 많아요”라고 답해 드렸다.

할머니는 또 자식들이 권해서 뼈에 좋은 다는 멸치도 많이 먹었는데 왜 그러냐며 되물었다. “멸치에 많은 칼슘이 뼈에 좋기는 하지만 운동 부족이나 폐경후 호르몬 불균형으로도 뼈가 약해지고요. 그 외 비타민 D 등의 음식 섭취도 필요합니다. 술, 담배는 안하셔야 하구요. 혹시 할머니 배쪽은 아프지 않으세요?” 질문에 답하자마자 할머니는 곧바로 허리가 아프다는 배는 왜 문나며 의아해했다. “허리뼈가 골절되면 허리의 심한 통증 뿐만 아니라 배까지 허리피를 두른 듯한 통증이 생기기도 해서 여쭙게 예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나 같은 늙은이도 치료는 할 수 있는 거냐”며 걱정을 하셨다. 주위의 많은 분들이 늙어서 아프면 노망이 오거나 움직이지도 못하고 계 돼 결국에는 돌아가시더라며 어두운 기색을 보였다. 검사와 치료 방법, 이후 수술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며 안심을 시켜드렸다.

“할머니 우선 몇 가지 검사를 할게요. 엑스레이(X-ray) 검사, 자녀 분들께 들

어보셨겠지만 MRI 검사를 할게요. 전신 뼈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골다공증 검사도 해야 돼요. 일단은 좀 쉬시게 중요해요. 2~3주 가량 안정을 취하면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진통제 처방받고 약도 드셔야 합니다.” 안정을 취해도 계속 아프면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자 할머니는 수술은 무섭다며 얼굴이 금세 굳어졌다.

수술은 비교적 간단한 것으로, 마취하고 부러진 뼈에다가 의료용 시멘트를 넣어서 굳히는 방식이니 걱정마시라고 안심을 시켜드렸다. 그래도 미심쩍은 지 할머니는 ‘그 수술 말고는 다른 건 안하 게 돼 결국에는 돌아가시더라며 어두운 기색을 보였다. 검사와 치료 방법, 이후 수술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며 안심을 시켜드렸다.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노인들에게 낙상은 젊은이들과 달리 생명을 단축할 수도 있는 위험한 사고다. 다리 힘이 약한 노인들은 항상 낙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눈이 내린 뒤 미끄러워진 거리를 걷는 것은 노인들에게 지극히 위험하다. 노인들은 시력이 좋지 않는데다 주의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관 길이 아니라도 넘어지기가 쉽다. 비로 인해 미끄러워진 길은 항상 주의해야 하고, 지면에 떨어진 물건을 밟거나 바닥에 깔린 줄도 조심해야 한다. 노인들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도 주의해야 한다. 방이나 거실 바닥에 미끄러운 양파망이나 비닐 등이 깔려있지 않도록 치워야 하고, 신지어 신문이나 불판 등도 굴러다니지 않게 정리해놓아야 한다.

평소 골다공증이 있거나 뼈와 근육이 약한 노인들은 살짝 미끄러져도 심각한 부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다친 후 통증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일상생활을 하는 게 병을 키우지 않는 지혜다.

社說

전남도 산하기관 혁신 공염불에 그쳐서야

민선 6기 전남도의 조직 혁신의지가 기대 이하다.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이 만성적인 적자구조에 허덕이면서 대폭적인 구조조정이 절실했으나 도가 내놓은 처방은 반약하고 보잘 것이 없어 실망을 감할 수가 없다.

3월 전남도는 35개 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5개 기관을 통폐합하거나 신설을 중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관간 업무관과 일일 회를 하고 3개 센터 51명은 증원 보류, 행정인력 7명은 감축할 계획이다.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 등 68명이 동원돼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동안 발인 경영평가 후 조치되고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본보가 도의 16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수지를 직접 분석해 2013년 당기 손실 규모가 214억6400만 원에 달하고 갈수록 적자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한 대로 기관 퇴출 등 과감한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지역민들은 물론 전남도의 공무원들조차 방만한 경

영에 대한 실질적인 수술을 바랐지만 결과적으로 조직점검만 한번 해본 꼴이 되고 만 것이다.

구조조정은 당연히 고통과 희생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종사자와 이해당사자 등의 저항과 자기 방어에 거세게 마련이다. 그래서 어려운 일인데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고위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이 었보인다.

다만 전남도가 이번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상반면까지 기관별 혁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혀 거기에 한 가닥 희망을 걸어본다. 부디 혁신의 흉내만 내지 말고 현실을 추내는, 성과도 없는 시스템은 과감히 바로잡길 바란다.

이낙연 지사도 이들 기관에 대한 더 강력한 개혁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평소 기관장의 책임경영을 강조한 만큼 임기와 상관없이 필요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금 시기를 놓치면 다시 개선하기가 어렵고 자칫 물 건너갈 수도 있는 것이다.

전남지역까지 위협하는 소나무 재선충병

전남지역에도 소나무 재선충 병이 확산 추세에 있으며 그 피해는 여수와 광양, 순천 등 동부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광양·순천 일대에서 2011~2013년까지 3년간 1만7000여 그루의 소나무가 재선충 병에 걸려 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동부권의 피해는 진해, 거제, 통영 등 경남지역에 집중됐던 재선충이 적절한 방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남해, 하동 등을 거쳐 인근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은 0.6mm~1mm 크기의 머리카라 모양으로 소나무의 수분 이동통로를 막아 나무를 고사시키는 치명적인 병이다. 산림청이 파악한 전국적인 피해지역은 64개 시·군이며 피해 나무 수도 218만 그루에 달하고 있다.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현재의 속도로 재선충 병이 확산되면 3년 안에 소나무가 국내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의 산림에 일대 위기가 닥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각한 것은 아직까지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마땅한 예방책도 치유책도 없다는 점이다. 일본과 대만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다.

재선충이 창궐한 데는 무엇보다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화를 키웠다. 지난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재선충이 처음 발견된 이후 정부는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러 방책을 시행해 왔지만 저지선이 모두 뚫렸다.

재선충의 매개체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가 자력으로 날 수 있는 거리가 1년 동안 3km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연 감염은 당국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인위적인 전국적인 피해지역은 64개 시·군이며 피해 나무 수도 218만 그루에 달하고 있다.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현재의 속도로 재선충 병이 확산되면 3년 안에 소나무가 국내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無等鼓

현재 국제 사회 최고의 트러블메이커를 꼽으라면 단연 ‘IS’(수니와 무장단체 이슬람국가)일 것이다. 연일 외신 기사 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IS’는 테러나 협박, 살해, 소년 병사 등의 단어로 아우러져 우리에게 강한 부정적 이미지로 다가온다. 아울러 터키에서 최근 실종된 김 모(18) 군이 IS 가입을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삼 이슬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국내에선 이슬람교 신도 수가 적고, 갈등 상황이 없어 무슬림의 존재감이 약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이슬람교

고려인 무슬림

를 믿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부터이니 그 인연만은 결코 짧지 않다.

기록상 우리나라 최초 무슬림은 700년대다 주의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관 길이 아니라도 넘어지기가 쉽다. 비로 인해 미끄러워진 길은 항상 주의해야 하고, 지면에 떨어진 물건을 밟거나 바닥에 깔린 줄도 조심해야 한다. 노인들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도 주의해야 한다. 방이나 거실 바닥에 미끄러운 양파망이나 비닐 등이 깔려있지 않도록 치워야 하고, 신지어 신문이나 불판 등도 굴러다니지 않게 정리해놓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1985년 중국 윈난아 유적지에서 도시 확장공사를 하던 중, 이슬람교도 공동묘지에서 발견된 고려인 묘비를 통해 알려졌다. 묘비가 발견된 곳은 충

국 광동성 광저우시 이슬람교도 묘역인 청진선현 고묘(淸眞先賢古廟) 부근이다.

묘비 원본은 그 중요성이 인정돼 중국 이슬람협회에서 거둬들였으며 현재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이슬람사원인 회성사에 보관 중이다. 그곳 광저우 박물관은 동서 교역사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유물로 보고 그 복제품과 사진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고려인 묘비의 비문은 한문과 아랍어로 돼 있다. 우측면에 한문으로 “대

도로(大都路·지금의 북경) 완평현(당시 고려인촌) 청현관 주인 라마단은 고려 사람

이다. 나이는 38세다”라고 적혀 있다. 이밖에 “1312년에 태어난 라마단은 북경 남쪽의 청현관이란 저택에 살다가 1349년 광서도 응주 육천현을 다스리는 다루가치(지방통치관)에 임명됐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무슬림인 라마단은 고려가 이슬람 문명과 자연스러운 교류를 해 왔다는 증표다. 700년이 지난 지금, 실종된 김 군이 가입을 희망한 IS가 향후 이슬람과 우리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채희중 사회팀장 chae@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63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96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케팅국 227-9600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다 자 인 실 2200-536 프 로 젝 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서 울 지 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